

# 이재상

변호사시험대비 Step 1

강의계획서

## 박사

## 형법

# 단권화정리

선택과 집중, 출제가능성 높은 쟁점 위주로 변시적합성을 극대화 한 강의진행  
사례형 대비 - 핵심쟁점 200개 위주 정리, 답안작성법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선택형 대비 - 최신판례 위주로 중요판례 3,000여개 선별 및 기출표시를 통해  
중요한 판례의 확실한 학습

2016년 1월 6일 개정법률(형법, 폭처법, 특가법) 완벽 반영

매일 핵심기출지문OX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중요학습내용 복습

### 시 간

2016. 6. 15(수) ~ 6. 27(화), 총 18 회, 월~금, 오후·저녁

**매일 복습용 핵심OX풀이** 오후 1시 25분 ~ 1시 40분

**오후강의** 오후 1시 40분 ~ 5시 30분

**저녁강의** 저녁 6시 40분 ~ 10시 30분

※ 개강일 시험 없음 (1:40개강)

※ 사례형 시험 있는 날(5,11,17회)은 1:00부터 시험

### 교 재

• 새로 쓴 로스쿨 형법(저자, 전면개정판)

• 로스쿨 형법 핵심정리(저자, 제공)

• 최신 판례자료(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 전합 판결 사례형 문제 포함)

※ 복습용으로 매일 20개씩 기출지문으로 구성된 핵심 OX 문제를 제공합니다(총10회).

### 수 강 특 전

• 실강수강생에 한하여, 특별형법사례 특강 교재 및 강의 무료제공 (7월중 진행예정)

#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 형법 단권화정리

### 강 의 특 징

#### 1. 강의시작 전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

(1) 벌써 7개월 앞으로 다가 온 제6회 변사를 대비한 최적의 형법강의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1순환 강의는 단순한 기본강의가 아닙니다. 1순환 강의는 변시대비 실전강의입니다. 새로운 형법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는 강의입니다. 다음 시험은 벌써 7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기존의 알고 있는 형법의 쟁점들을 정리하여 실전에 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2) 선택형 문제 강의와 사례형 문제 강의는 따로 떨어진 강의가 아니라 연속성 있는 통합강의이어야 합니다.

- 형법은 전형적으로 선택형 쟁점과 사례형 쟁점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례형 쟁점이 곧 선택형 문제로 출제됩니다. 따로 떨어진 공부나 아니라 사례형과 선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강의가 되어야 합니다.

(3)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 위주로 시험에 대비하여야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① 이미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상 봤던 내용을 또 다시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 ② 기출 및 출제예상 쟁점 위주로 보는 것이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장 큰 미덕인 수험생활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 ③ ‘선택과 집중’이 본 1순환강의의 모토입니다. 강의시간에 시험 직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표시해 주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런 공부방법을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연습하고, 실제 변호사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 18회 강의 동안 기출쟁점 및 출제예상쟁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번 순환 강의시간에 다루지 않는 내용은 얼마든지 혼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 보강은 하지 않습니다.

- 강의를 주어진 일정에 맞추어 끝내야만 수험생들은 그 다음 일정으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고, 전 순환강의에 효율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효과를 높게 됩니다. 주어진 일정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형법쟁점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 형법 단권화정리

### 강 의 특 징

#### 2. 교재소개

- 강의 기본교재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전면개정판, 월비스판)」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 본 교재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였습니다.

(1)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200개 가까운 핵심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3,400여개의 최신 중요판례를 수록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암기를 위한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 ① 모든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쟁점 순서별로 Leading Case가 되는 최고의 중요판례들을 가능한 한 사실관계와 함께 박스에 넣어서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학습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동지판례, 대립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② 판례의 핵심내용을 판례제목으로 정리하여 판례제목만 보아도 판례의 내용과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③ 변사 기출판례는 단 한 개도 빠짐없이 해당 판례에 각주처리를 하여 수록하고, 반드시 OX 표시를 함으로써 실전감각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법의 핵심이론을 200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도표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 형법의 핵심이론 중 사례문제 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이론들은 빠짐없이 그 내용과 비판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형법 단권화정리**
**강 의 특 징**

(4) 형법이론에 대한 쉬우면서도 풍부한 기술과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 ① 법학과목은 사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법이론을 설명하기 전 반드시 간단사례를 기재하고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형법이론을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② 난이도가 높은 핵심쟁점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례연습과 사례해설 항목을 수록하여 형법 이론을 학설별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 핵심판례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 그밖에 보충설명 등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5) 교재 본문에도 기출지문을 적극 수록하여 실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각주에 기재한 기출판례지문 뿐만 아니라 형법이론이 자주 출제되는 시험경향을 고려하여 변사나 사시에서 기출된 형법이론들을 ‘기출지문’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편성하여 예민하고 혼동하기 쉬운 형법이론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① 2016년판부터는 변사나 사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에도 모두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것은 곧 형법과목의 특A급 쟁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② 모든 기출판례에는 예외 없이 변사와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형법, 폭처법, 특가법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 형법 단권화정리

### 강 의 특 징

#### 3. 중점적 강의진행사항

##### (1) 형법 중요쟁점의 체계적 정리와 선택형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형법 단권화 구축

- ①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적인 중요쟁점을 엄선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철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자주 출제되는 쟁점은 '자세하고 철저하게' 함께 정리하고,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수험생 자신의 정리에 맡길 것입니다.
- ② 강의교재에 수록된 변시 및 사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 해설하여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빈출쟁점을 뽑아내어 향후 출제될 쟁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교재의 자랑인 '누적 기출표시'는 향후 출제 가능한 중요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2) 선택형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강의진행

- 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 최근 변시나 사시의 출제경향은 철저하게 판례위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판례위주로만 공부해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판례를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 변시나 사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 최신 3년간 중요판례. →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시사성이 있는가, 중요쟁점을 담고 있는가, 누적된 판결의 연결선상에서 나온 판결인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본 강의는 출제가능 한 중요판례의 취지와 의미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둘 것입니다.
- ② 선택형 이론문제를 대비하여 출제가능한 형법이론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살펴볼 것입니다.
  - 선택형 문제는 순수한 이론문제로도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이론문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에는 출제가능한 모든 형법이론과 쟁점들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며, 개별쟁점에 따른 각 학설의 내용을 가능하면 외우기 쉽게 짧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시 이론문제 기출지문과 사시 제44회 시험 이후의 기출지문들을 책 내용 속에 빠짐없이 적어놓아 책 내용을 읽는 것이 곧 선택형 기출지문을 보는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중요기출지문에는 기출표시도 잊지 않고 해 놓았습니다.

#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 형법 단권화정리

### 강 의 특 징

③ 개강 다음날 부터 매일 변사와 사시 기출문제 중 20개의 핵심지문으로 구성된 복습형 OX 문제로 전일 학습내용을 점검합니다.

④ 2015년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문제 기출해설을 제공합니다(1회 ~ 2회 분)

- 변사 문제와 더불어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2016년에 시행될 모의고사 문제도 차후 2순환, 3순환 때 수강생에 한하여 해설을 달아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사례형 문제 완벽대비를 위한 강의진행

① 사례의 검토와 쟁점추출

- 사례형 문제의 시작은 쟁점추출입니다.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숙지해 나갈 것입니다.

② 답안의 작성방법

- 똑같은 답안이라도 고득점을 하는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이 있습니다. 보통 형법 사례형 문제의 결론은 알겠는데 답안작성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목차 구성을 할 것이며, 해당 논점을 서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③ 실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할 간결한 표현, 판례문구 정리.

- 형법이론이나 판례의 내용 이외에도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 사용해야 할 표현방식과 문구,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답안의 분량조절 등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④ 2015년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문제 기출해설을 제공합니다(1회 ~ 3회 분)

- 선택형 문제와 동일하게 사례형 문제에서도 법전협 모의고사는 사례형 문제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이 부분도 차후 지속적으로 해설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 의 특 징****4. 선택형 문제 고득점을 위한 공부방법론****(1) 선택형 지문의 출제방식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 ① 선택형 지문은 궁극적으로 OX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출제됩니다.
- ② (O)의 형태로 출제될 때에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기본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③ (X)의 형태로 출제될 때에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내용이 출제지문에서는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숙지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국 기출지문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 ④ 교재의 이론부분은 기출지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는 기출표시까지 해 두었습니다. 특히 '기출지문 연습'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매일 제공되는 진도별 기출지문 OX와 2015년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시 50회 이후에 출제된 기출판례가 아직 변사에서 출제되지 않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령 사시 기출판례가 지난 4회 변사에서 처음 출제된 것은 총론 16개, 각론 24개 총 40개입니다. 그 중 60% 중반 이상이 사사에서 2회 이상 출제된 판례들입니다. 변시 출제 교수님이 사시에서도 그대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작금의 현실상 아주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제5회 변시에서도 또 다시 뚜렷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3) 선택형은 물론이고 사례형 문제에서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 ① 바로 1년에 3회에 걸쳐서 실시되는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 ②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변시 출제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상당수 지문들이 그 해 변시에 출제됩니다. 물론 지문은 변형되어 출제되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형법이론이거나 판례입니다.

#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 형법 단권화정리

### 강 의 특 징

#### 5. 사례형 문제 고득점을 위한 공부방법론

##### ① 사실관계의 분석

- 사실관계의 분석은 사례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명백한 사실관계는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 애매한 사실관계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토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 ② 사안에 관한 쟁점의 정리

-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주어진 사안에서의 쟁점을 검토할 순서에 따라 개념적으로 추출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논점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논점이라고 하여 그것만 열심히 분석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빠트려서는 안 되는 논점을 제외한다면 답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본인의 노력에 비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결과를 낼 것입니다.

##### ③ 사안의 체계적 검토와 쟁점에 대한 해결

- 범죄체계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대로 가벌성 여부를 심사확정해 나가며 그 과정속에서 쟁점들을 해결합니다. 위법성과 책임은 사례에서 특별한 사유가 언급되지 않을 때에는 단순히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면 됩니다.
- 사안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여 그에 따라 범죄의 성부 내지는 그 근거가 달라지는 곳에서는 실무 위주의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학설의 소개는 최소화하고, 판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릴 경우 무난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결론과 죄수관계

- 결론 그 자체보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논증과정이 중요하므로 이를 간단히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며, 여러 범죄가 성립한 경우는 반드시 그들 사이의 죄수관계를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 강 의 특 징

6. 2016년도 시행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사례교재 및 모의고사 출제사례문제와 적중문제 비교

(1)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제1문)

① 甲과 乙은 공원을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여성 A(22세)를 함께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A를 으스스한 곳으로 끌고 간 다음 乙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甲은 A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A의 위에 올라타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A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반항하면서 도망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그때 공원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P1이 A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결과적 가중범 미수)**

② 이를 본 乙은 혼자서 급히 다른 곳으로 도주해 버렸고 甲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A의 핸드백을 들고 도주하였다. 그 장면을 목격한 P1이 도주하는 甲을 100여 미터 추적하여 붙잡으려 하자, 甲은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P1의 얼굴을 세게 때려 P1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甲은 P1의 추적을 벗어난 다음 다른 곳에 도망가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乙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육교 밑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든 B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앞범퍼로 B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B는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도로변에 쓰러졌다.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는 교통사고 후 도주의 문제)**

甲은 B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정차하려 하였으나 乙이 “그냥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고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렸다. 다행히 B는 현장을 목격한 행인 C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1.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60점)

#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 형법 단권화정리

### 강 의 특 징

#### 1. 甲과 乙이 A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

#### ●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출제사례와 적중문제 비교 :

####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2회 문제와 동일 쟁점]

- (1) 외제차 마니아 甲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최신 모델의 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다가 도저히 돈을 마련할 길이 없자 결국 강도를 하여 외제차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甲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발길이 닿는 대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어스름한 저녁 무렵에 한강 고수부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甲은 뜻밖에도 고액의 수표와 현금 다발을 가방 속에 지닌 A를 발견하게 되었다. 甲은 나이도 있고, 몸도 약해 보이는 A의 금품을 강탈하기 위하여 뒤를 쫓으며 기회를 엿보던 중, A가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어느 한적한 지점으로 들어서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A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 ① 그런데 상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던 甲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甲의 과도한 폭행으로 인하여 A는 피를 흘리며 심한 상해를 입고, 그만 기절을 하였는데, 너무나 당황했던 甲은 단지 기절한 것에 불과한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죄적을 인멸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한강물 속으로 멀쩡하게 살아 있는 A를 유기하였다. 강물 속으로 던져진 A는 결국 익사하고 말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甲은 A의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탈취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있는 힘을 다하여 도주하였다. (결과적 기중범의 미수)

→ 사례 (1)에서 甲의 죄책을 논하되, 증거인멸죄와 사체유기죄의 성부는 논외임.(40점)

#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 형법 단권화정리

## 강 의 특 징

## 2. 甲이 A 소유의 핸드백을 탈취하고 도주하다가 P1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 ●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사례교재와 적중문제 비교 :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5년판 사례 22와 동일 쟁점】

그 후 해고를 당한 丙은 자신이 ‘토사구팽’을 당한 것을 알고는 M에게 앙심을 품고 M의 집에서 돈을 훔칠 생각으로 친구인 丁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丁은 이를 승낙하였다.

② 범행 당일 밤 丙과 丁은 M의 집 담을 넘어 M의 서재 안으로 잠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과 수표 등을 꺼내 가지고 집밖으로 나오던 중 마침 순찰을 돌던 경찰관 A와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丙과 丁 경찰관 A를 보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이들을 절도범으로 판단한 A는 丙을 추격하였다. 丙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붙잡히지 않기 위해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A를 강하게 밀치고 도주하였고, 이에 A가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丙과 丁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 II. B에 대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甲과 乙의 죄책

## ●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사례교재와 적중문제 비교 :

##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사례 1과 동일 쟁점】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과속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C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C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게 되었다. 甲은 피해자 C를 구조할 것인가를 두고 순간 망설였으나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차량을 정차하거나 C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는 교통사고 후 도주의 문제)

甲은 사고 당시의 과속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얼마든지 C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달아나버린 탓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C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 판례에 따라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 (60점)

**강 의 특 징****(2)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제2문)**

甲과 乙은 서울 소재의 참소식신문사(대표이사 김참말)에서 일하는 사회부 기자들이다. 甲과 乙은 연말 특종을 노리고 의사들의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투여실태를 취재하고 있던 중, 다나아 종합병원 원장 A가 유명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다는 풍문을 듣고 2014. 12. 30. 14:00경 취재를 위해 다나아 종합병원으로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대표이사 김참말은 甲과 乙에게 포상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격려하였다. 다나아 종합병원에서 甲과 乙은 마침 유명 연예인 B가 진료실에서 병원장 A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있는 것을 우연히 열린 문틈으로 목격하고, 프로포폴 불법투여가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에 甲과 乙은 보다 상세한 취재를 위해 자신들이 투여장면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A와 B에게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사생활이라 이야기하기 싫다고 답변하였고 병원장 A는 환자의 비밀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며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이에 甲과 乙은 1)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진료실에 들어가 프로포폴 1병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2) A와 B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으나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장 A가 거액을 받고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해 주고 있으며, B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투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 기사는 다음 날 참소식신문 1면 특종으로 게재되었다. 甲과 乙은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고 A나 B를 비방할 의도 없이 이들의 불법투여사실을 알림으로써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근절하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에서 기사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이었고, 병원장 A에 관한 내용도 허위사실로서 다나아 종합병원의 경쟁병원 의사 C가 낸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형법 제310조에 대한 위전착) 기사가 보도된 뒤 많은 사람들이 A와 B를 맹비난하였고 나중에 기사내용을 알게 된 A와 B는 터무니없는 허위 기사를 쓴 기자 甲과 乙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한편 3) 다나아 종합병원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 공무원 丙은 참소식신문의 기사를 읽고 유혹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병원장 A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프로포폴 투여사실 외에 그동안 수집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뇌물에 대한 공갈죄와 뇌물수수죄)

#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 형법 단권화정리

### 강 의 특 징

1.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가. 1) 사실에 대해서 甲과 乙에게 성립가능한 죄책을 제시하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논외로 함], 이때 변호인의 입장에서 甲과 乙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거를 제시하십시오. (10점)

나. 2) 사실에 대해서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십시오. (25점)

다. 위 나.의 경우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 김참말에게 방조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를 제시하십시오. (5점)

4. 3) 사실에 대해서 丙의 죄책을 논하십시오. (10점)

### II. 2) 사실에서 甲과 乙의 죄책

●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출제사례와 적중문제 비교 :

####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6회 문제와 동일 쟁점]

- (1) A 맥주회사의 직원이었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甲은 기자인 친구 乙과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사실 A회사를 포함한 국내 5개의 맥주회사가 모여서 가격인상담합을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乙이 자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자, 甲은 재직시절 5개의 맥주회사 담당자가 가격인상담합을 모의하는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하면서 이를 들려주었다. 녹음된 파일을 넘겨받은 乙은 국민이 물가상승에 민감해져 있는 현시점에서 구독률을 올릴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다음날 이를 기사화하였다. 乙의 입장에서 당시 정황상 녹음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녹음내용을 진실로 확신하고 기사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甲이 구조조정에 불만을 품고 A맥주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녹음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310조에 대한 위전착) → 사례 (1)에서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십시오.(45점)

#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 형법 단권화정리

### 강 의 특 징

#### Ⅲ. 3) 사실에 대한 丙의 죄책

-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사례교재와 적중문제 비교 :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5년판 사례 22와 동일 쟁점】

某 경찰서 형사반장 甲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설 정보팀의 운영비가 떨어지자 유홍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과자 乙에게 뒷조사를 해서 구속시켜 버리기 전에 자기 정보팀에 돈을 기부하라고 하여, 이미 여러 번 그러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 乙은 甲이 운영하는 사설정보팀의 팀장 B에게 금 500만원을 건네주었다. (뇌물에 대한 공갈죄와 뇌물수수죄) → 사례 (1)에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 형법 단권화정리

##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내용	사례형 시험
1	6/15(수)	<b>[형법총론]</b>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법인)	
2		부작위범/인과관계/객관적 귀속/구성요건적 고의	
3	6/16(목)	사실의 착오/과실범/결과적 가중범	
4		위법성론	
5	6/17(금)	책임론(1)	○
6		책임론(2), 미수론	
7	6/20(월)	공범론(1)	
8		공범론(2)	
9	6/21(화)	공범론(3), 죄수론	
10		형벌론 <b>[형법각론]</b> 생명·신체에 대한 죄	
11	6/22(수)	자유에 대한 죄,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2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재산에 대한 죄(1)	
13	6/23(목)	재산에 대한 죄(2)	
14		재산에 대한 죄(3)	
15	6/24(금)	재산에 대한 죄(4)	
16		재산에 대한 죄(5)	
17	6/27(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8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